

특 집

임시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교원지위 특별법’ 문제점 진단

민자당은 지난 5월 3일 야당의 반대 속에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 뒤 8일 본회의에서 역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처리하였다.

이 법의 내용이든 내용이지만 실효와 방식이 너무 나쁘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민족의 동량 젊은이들이 백주에 폭력경찰에 맞아죽고 몸을 불살라 죽어가고, 교수·종교인·교사·일반 시민까지 들고 일어나 민주개혁과 악법개혁을 하늘 높이 외치고 있는 급박한 시점이 아닌가? 이와중에 전교조를 배제시키는 특별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민자당의 오만함에 그저 어안이 병병한 뿐이다.

●특별법제정을 강행한 속뜻

교원지위에 관한 조항은 현행에도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기존 교육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이 특별법 제정을 강행했다는 것은 이제까지 교원의 지위나 신분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최소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법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는 민자당과 유일한 합법단체의 지위를 계속 보장받고자 하는 한교총 사이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게 된 것이다. 또한 이 법의 제정은 작년 민자당 합당 이후 다수의 횡포로 밀어부친 사립학교법과 교육 방송법의 개악과 맥을

바로 교육부였다. 정계여부 뿐만 아니라 정계양정까지도 일일이 지시를 내렸다. 현재 교육부는 최대 교원탄압기구이자 실질적인 교사징계권자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경기도 소명여고의 가토리재단이 교사징계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재단보조금 중단, 교장승인 취소 등 갖은 협박을 다한 끝에 재고장을 7차례나 보내 끝끝내 교사징계를 관철시킨 당사자가 바로 교육부다.

현재 사회민주화를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서 징계위협을 가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교육부나, 교육부는 징계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로 민자당이 가장 생색을 내고 따라서 가장 유해한 부분은 한교총에 교섭협의권을 준 것이다. 이것은 특별법제정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부분으로 한교총을 유일한 교섭단체로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노동3권 자체와 여기에 근거한 전교조를 배제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한교총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며 교원지위취탈법인 것이다.

기실 교섭협의권이든 어떠한 구속력도 없어 권리라고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오히려 교원의 자국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통한 교원지위향상을 봉쇄하는 것으로서 차라리

복지 위장한 꾀데기 법안

교원 탄압해온 교육부에 징계권 위임

같이 하고 있다. 즉 교육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을 요구해 온 30만 교사의 염원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교육부문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서 명칭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일반 교사와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개량책동인 것이다.

●민자당식 교원지위향상법

이 법의 허구성은 첫머리에 있는 교원의 예우에 관한 규정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국가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를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등 지극히 공허한 선언으로 추상적인 티셔츠만 하고 있을 뿐이다.

교원예우를 관련 행사에서 앞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당국의 시각자체가 지극히 관료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것으로 오히려 교원을 욕되게 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미 교육공무원법 제34조에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특별법에서 “교원의 보수는 특별히 우대되어야 한다”라고 되풀이 하고 있다. 교사들이 얼마나 만만하면 이렇게까지 우대할 수 있을까?

진정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권력과 재단의 억압으로부터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원의 자율성-사상과 표현 및 양심의 자유, 그리고 교육활동의 자주적 전문성등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이 없이 교원에 대한 예우를 언급하는 것은 한낱 말장난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둘째로 그동안 공무원 일반에 대한 소정심사를 총무처에서 일괄담당하던 것을 교원의 징계재심은 교육부로 이관한 것인데, 과연 이것으로 교원의 신분이 보장되고 지위가 향상할 것인가? '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1,600여명의 교사들을 징계하여 쫓아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곳은

없었지만 못한 것이다.

더욱 이상한 것은 교원의 노동3권을 반대하고 있는 한교총이 단체교섭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교섭 협의권의 허약함을 알기 때문에, 교원노조를 반대하면서도 노동조합의 고유한 권리인 단체교섭권을 주장하는 자기모순에 빠져버린 것이다.

●교원의 노동기본권보장이 최우선 과제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교육은 아동을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격체로 양육하는 숭고한 교육노동행위이다. 이렇게 지극히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교육전문직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오늘날 세계적 추세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진정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킬려면 특별한 내용도 없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해 있는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교사에게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즉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활동의 금지 등 문제조항을 삭제만 해도 되는 것이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면서도, 공권력에 의해 제자들이 살해되가는 현실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교사들이 징계위협을 받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바로 여기서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결국 이 특별법의 유일한 수혜자는 한교총과 그 후원자인 6공화국 정권이며, 최대의 피해자는 교육개혁을 염원하는 30만 교사와 국민 모두인 것이다.

이 철 국
(전교조 편집실장)

그대 이땅에 타오를 민주투사여!

지난 14일 ‘故 강경대열사 영결식 및 시창악 노제’는 정권의 탄압에 의해 ‘두번, 세번의 죽음’으로 비유되었다.

명지대를 떠난 운구행렬의 연화동 경유에 대한 저지, 시창악 노제에 대한 저지는 정권의 위기의식 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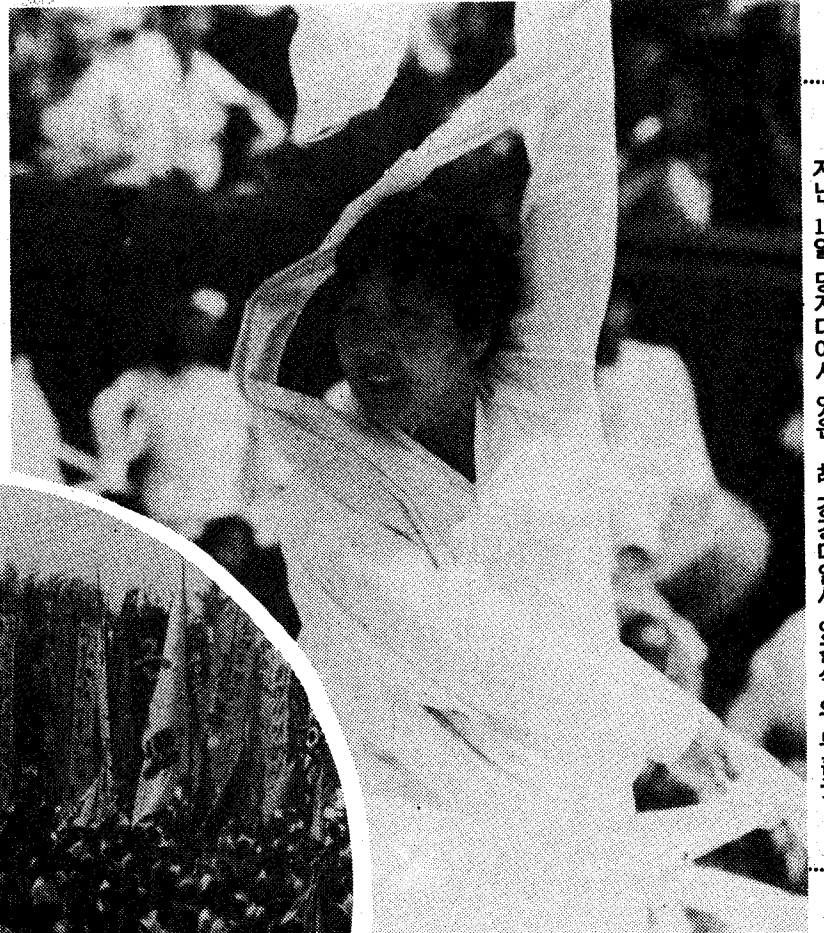
10만여명의 시민, 학생은 더이상 민중의 ‘요구’를 양보할 수 없었다.

본고에서는 14일 이제는 없어야 할 추모행사를 형상화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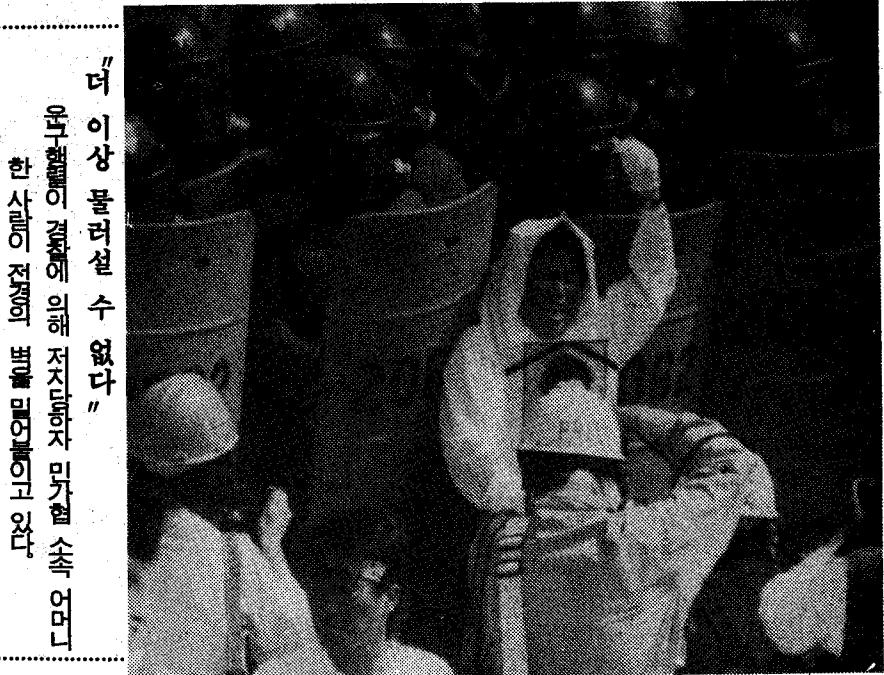
‘열사 마지막 가는길’
명지대를 출발한 운구행렬



“열사여 영원하소서”
지난 14일 명지대에서 열린 ‘故 강경대열사 영결식’의 부분컷



‘제방송(?)’
잊을수 없는 기억의 되뇌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운구행렬이 정권에 의해 정지된 자, 민가할 속속 오면
한 사람이 전진의 불을 던졌고 있다.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어’
신촌로터리로 향하는 운구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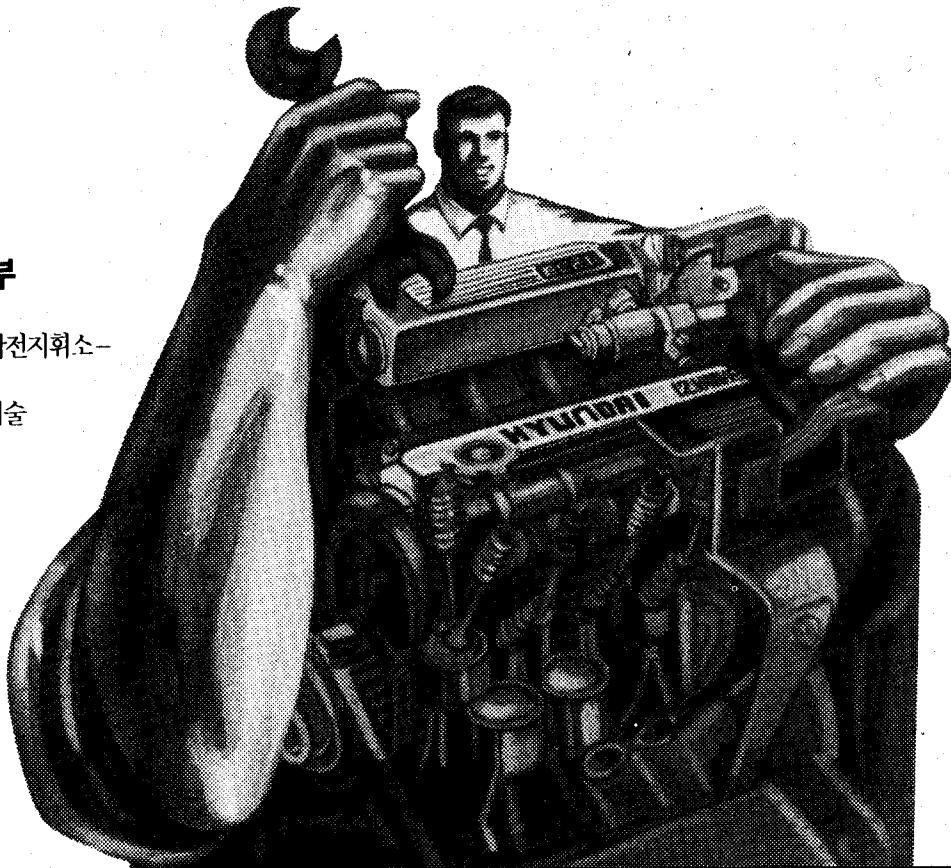
(방현기記者)

첨단 엔진의 개발 프로젝트를 이끄는 작전지휘소 -
자동차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갑니다.

첨 단 자동차 기술의 메카 -
현대 마복리 연구소 엔진시험부

자동차의 첨단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이끄는 작전지휘소 - 현대 마복리 연구소 엔진시험부!
이곳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불리는 첨단 기술 개발 경쟁과 선진국의 핵심 기술 보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는 도전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곳입니다.

첨단 기술 정보의 수집과 분석, 수백번의 시험 과정을 겪으며 선진 자동차기술의 거대한 벽을 뛰어넘는 사람들 -
바로 이들의 노력이 자동차 한국의 자부심이자 세계 무대로 당당히 나아가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 제 세계로, 미래로 -
첨단 기술의 벽을 넘는다

엔진시험부는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엔진 성능 시험 부문과 연소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배기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곳은 엔진 설계형상의 개선 방안 타점쟁 엔진과 성능 비교 테스트, 실차 탑재 전 최적성 비교 엔진의 최적화 및 내구성 강화 테스트 등 최종 사양 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발 업무를 총괄합니다. 때로는 샘플 엔진에, 때로는 선진기술의 벽에 부딪치며 하나 둘... 자동차 한국의 꿈을 실현해가는 사람들 -

이들의 노력이 오늘을 사는 치열한 정신이자 내일의 첨단 자동차기술을 리드해갈 힘입니다.

내 일의 주인공은 -
바로, 그대가 아니다

인간 의식과 생활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오늘날 여러분들은 일시적인 쾌락과 유행만 좇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실패의 허물이 용납된다는 것 - 젊은 세대들만의 특권입니다. 세계 첨단 자동차 기술을 리드하며 지구촌 곳곳에 한국인의 자부심을 펼쳐갈 내일의 주인공은 누구? 바로, 젊은 세대들입니다.

마음을 나누며, 미래를 꿈꾸며
현대자동차가 밝은 내일을 추구해갑니다.

현대自動車